

[세종특별자치시]

76종의 데이터를 한곳에 모은 ‘세종엔’서비스를 선보이다

미국, 일본, 중국, 영국, 스페인 등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스마트도시’건설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 도시란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도시 생활 속에서 유발되는 교통, 환경, 주거 문제 등을 해결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 ‘똑똑한 도시’를 말한다. 여기서 스마트 인프라(Smart Infrastructure)는 스마트도시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단순히 사람이 생활하는 1차원적 의미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이 똑똑한 도시이기 때문이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는 스마트 인프라를 기반으로 시민 체감형 서비스와 체계적인 행정시스템이 균정 잡힌 ‘세종엔’을 선보였다.

작성 : 세종특별자치시



01 스마트포털 ‘세종엔’의 3가지 기능

스마트포털 ‘세종엔’은 교통, 방법, 환경, 문화, 보건 등 76종의 데이터를 한곳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이다. 스마트한 도시생활을 위한 가이드 역할을 수행하는 세종엔은 다음 3가지의 기능이 있다.

첫째

한눈에 보는 주변 정보이다. 타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OpenAPI를 통해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CCTV, 병원·약국, 음식점 등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정보를 지도상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POI(관심분야, Point Of Interest)를 통해 유용한 여러 정보들을 그룹화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갈 수 있게 네비게이션 역할을 한다.

둘째

시민 맞춤형 위젯이다. 세종엔이 제공하는 76종의 데이터 서비스 중 자신에게 맞는 정보를 설정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젯 기능을 제공한다.

셋째

한곳에서 보는 기상·생활정보이다. 위치기반을 통해 자신의 위치에 대한 날씨, 습도, 강수 등 기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폐기물 안내, 하천 수질 등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정보를 상세히 알아볼 수 있다.

02 코로나19 대응 특화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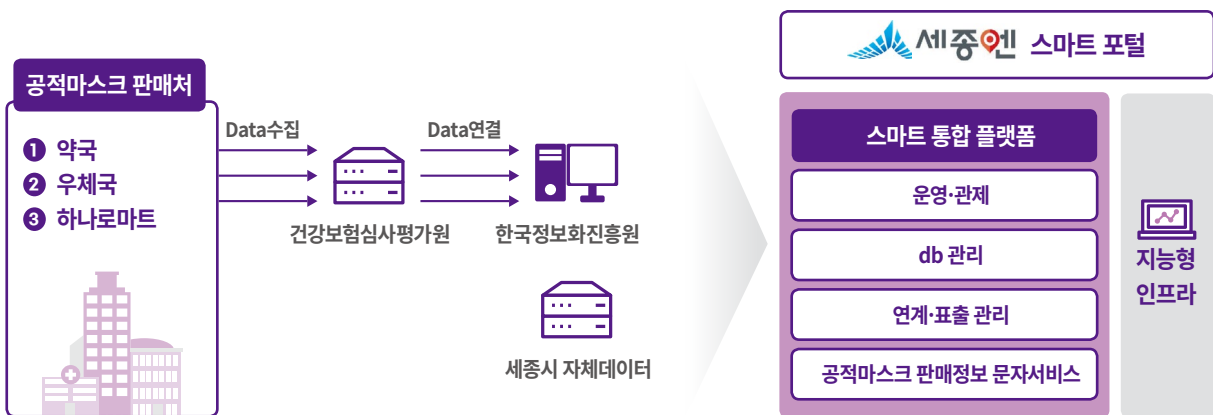
① 공적마스크 판매정보 알림서비스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로 인해 세종특별자치시는 공적마스크 판매, 마스크 5부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 정책에 맞는 세종엔 특화서비스를 시행하면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다. 이는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마스크 수량을 알려주는 ‘공적마스크 판매정보 알림서비스’를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 것이다.

3월 11일 공공데이터 개방에 맞춰 공적마스크 수량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마스크 사자’, ‘마스크 알림이’등 민간서비스를 출시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공적마스크 입고시간, 품절시간, 입고·품절 시간추이, 운영시간, 전화번호 등 공적마스크 판매 정보를 민간보다 상세히 제공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인터넷에서 정보를 취득하기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 대상으로 ‘공적마스크 판매정보 문자서비스’를 시행하였다. 만 65세 이상의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이면 누구나 스마트폰을 세종엔이나 주민자치센터에서 등록하여 공적마스크 판매정보를 문자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세종엔 서비스 누적 접속자 수는 2020년 1월 시행 이후 4개월 만에 10만명을 돌파하였다.

공적마스크 판매정보 알림서비스 데이터 프로세스



<그림 1> ‘세종엔’공적마스크 판매정보 알림서비스 데이터 프로세스

② 투표 대기시간 알림서비스

세종특별자치시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앞서 코로나19 감염 대응의 일환으로 선거를 담당하는 자치분국과 협업하여 '투표 대기시간 알림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정책에 맞게 시민들이 각 투표소별 대기시간을 세종엔에서 확인하고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투표 대기시간 알림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투표소별 대기시간 정보의 신뢰성이 중요한 요소였다. 그래서 선거 자원봉사자들이 투표 대기시간 알림서비스를 통해 대기시간 정보를 기입할 수 있도록 서비스 매뉴얼을 제작하고 교육하였다. 4월 9일에는 보람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세종엔 활용 시연회'를 개최하여 실제로 선거 봉사자들이 투표 대기시간을 등록하는 모의훈련을 통해 시민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외에도 스마트도시과와 자치분권과에서 비상근무조를 편성하여 각 투표소별 선거상황, 선거 자원봉사자들의 대기시간 입력 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철저한 대비를 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감염병 확진자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투표를 진행할 수 있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사전투표율 32.73%로 전국 3위, 본투표율 68.5%로 전국 2위를 달성하였다.

③ 기능 고도화 사업으로 더욱 발전하는 '세종엔'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엔'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실국이 보유하고 있는 숨은 데이터를 발굴하고, 핵심 서비스 콘텐츠를 추가 제공하기 위해 세종엔 기능 고도화 사업을 2021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 방범, 문화, 환경, 보건 등 각 실국 및 외부에서 운영하는 정보(사일로: Silo)를 추가 발굴 및 연계하고, 사용자 UI/UX 디자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시민 이용 접근성과 정보용 편리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민 의견 수렴, 리빙랩 참여, 시민 소통 공간 마련 등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세종엔'을 개선하여 스마트서비스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